

KLI 패널브리프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이규용 | 발행일 2015년 6월 4일(목) |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 제3호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이지은*

- 노동패널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분포는 2007~2009년에는 남성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낮아진 반면, 50대 60대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짐.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26.3%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43.9%로 나타나 비정규직 상태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에서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없이 미취업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16%,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한 후 미취업 상태로 이동하는 유형이 13.8%임.
- 인적 특성별 정규직 전환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0대·30대의 청년층이 50대 이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대 남성의 18.7%, 20대 여성의 17.8%는 노동시장 퇴장형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그만 둔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취업 준비를 위해 미취업상태로 이동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기타 서비스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정규직으로 이동함.



분석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임금과 고용불안정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 된지 7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도, 비정규직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30%(경제활동인구조사)이상을 차지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도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 글은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노동패널자료를 통해 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 한국노동패널 10~15차 개인자료의 분석 표본은 총 69,731명으로, 2007년 11,855명에서 2012년 11,444명으로 감소 - 취업자수는 지난 6년 동안 평균 6,400여명, 임금근로자수는 약 4,400여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1,300여명으로 나타남

〈표 1〉 한국노동패널의 개인 표본 현황과 비정규직 추이

(단위: 명, %)

	전체 표본수	성별		취업자	임금근로자		
		남자	여자		비정규직	비율	
2007년	11,855	5,753	6,102	6,391	4,346	1,172	27.0
2008년	11,734	5,670	6,064	6,374	4,340	1,147	26.4
2009년	11,739	5,676	6,063	6,362	4,363	1,354	31.0
2010년	11,582	5,593	5,989	6,442	4,484	1,434	32.0
2011년	11,377	5,470	5,907	6,417	4,535	1,491	32.9
2012년	11,444	5,530	5,914	6,528	4,599	1,574	34.2

주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따라,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하여, 세 가지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비정규직으로 간주함.
2)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9년에 추가된 표본을 제외하고, 1998년 1차자료부터 조사되었던 기존패널만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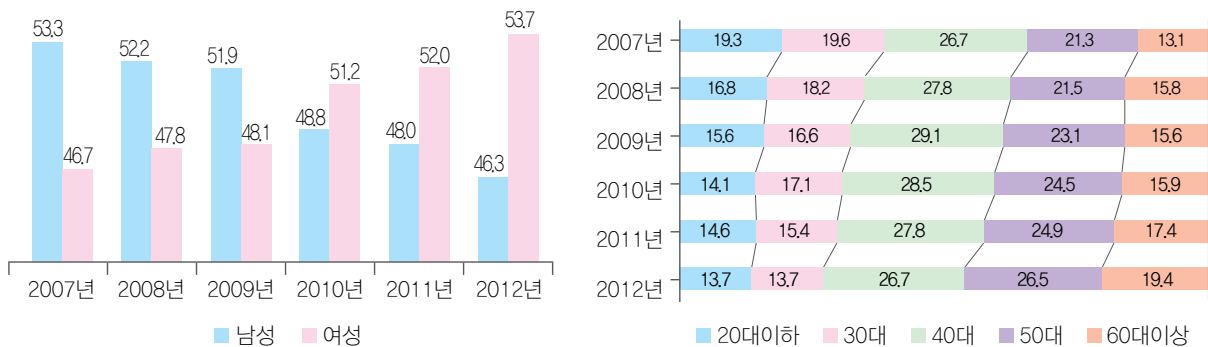
자료 : KLIPS 10~15차(2007년~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그림 1]에서 보듯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비정규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역전되어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50대, 60대 이상의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60대 이상은 2007년 13.1%로 규모가 가장 적었으나, 2012년에 들어와서는 19.4%로 20대, 30대보다 많아져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확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비정규직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주 : 각년도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0~15차(2007년~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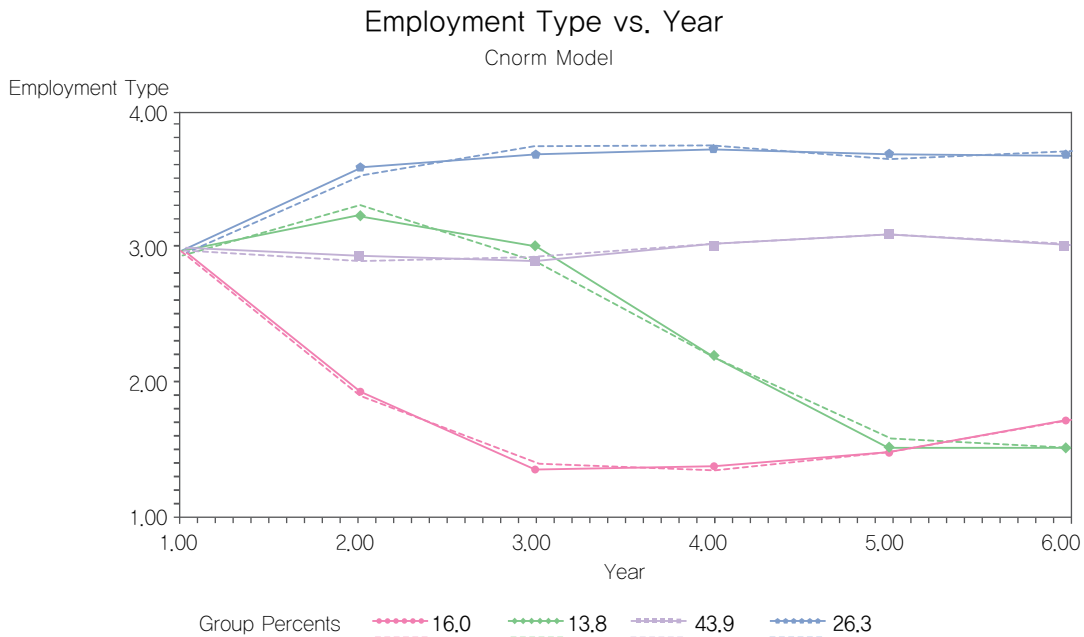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행 경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26.3%

-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시점 사건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유형화 하는데 유용한 ‘집단중심 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방법론’ 을 사용하였음.
- [그림 2]는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행경로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형(유형3: 비정규직 고착형)이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
 -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정규직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유형4:정규직 전환형)은 26.3%임
 - 다른 고용형태로의 별다른 전환 없이 미취업으로 이동하는 유형(유형1: 노동시장 퇴장형)이 16.0%를 차지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한 이후 미취업상태로 이동하는 유형(유형2: 불안정 노동시장 퇴장형)은 13.8%임.

[그림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단위: %)



주 : 1) 집단중심 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함.
 2) InΔBIC 기준으로 집단수를 정함.
 3) Employment type 1=미취업, 2=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 3=비정규직, 4=정규직
 4) Group 1=노동시장 퇴장형, 2=불안정 노동시장 퇴장형, 3=비정규직 고착형, 4=정규직 전환형
 자료 : KLIPS 10~15차(2007년~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출처 : <http://www.andrew.cmu.edu/user/bjones/download.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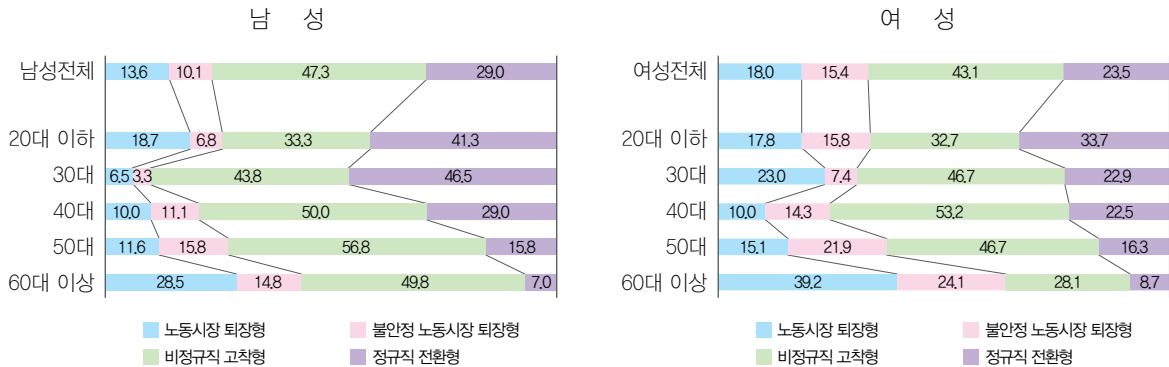
□ 남성이 여성보다,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정규직 전환율이나 비정규직 고착형 비율이 높고, 여성은 자영업을 거쳐 노동시장을 퇴장하거나 곧 바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이 높음[그림 3]

- 남성이 정규직 전환형 집단에 속할 확률은 29.0%로 여성(23.5%)보다 높으며, 비정규직 고착형도 남성(47.3%)이 여성(43.1%)보다 많음.
- 여성은 자영업을 거쳐 노동시장에서 퇴장(불안정 노동시장 퇴장형)하거나 비정규직에서 곧 바로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비율이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의 이탈이 많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 유형별 인구학적 특징

(단위: %)



주 : 각년도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IPS 10~15차(2007년~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정규직 전환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대·30대는 정규직 전환자 비율이 각각 41.3%, 46.5%로 가장 많은데 비해 40대 이상에서는 비정규직 진입 후 계속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집단이 50%수준임(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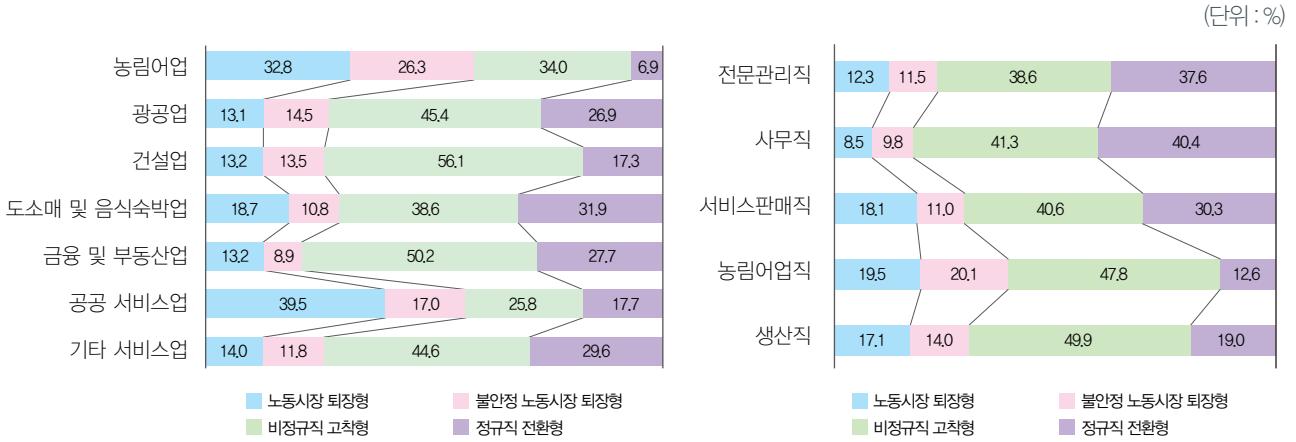
- 여성의 경우 20대는 정규직 전환 집단이 33.7%로 가장 높는데 비해 30대, 40대, 50대에는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음.
- 30대 여성은 출산과 양육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바로 퇴장하는 경우가 23%로 나타나 경력단절 후 미취업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함을 보여줌.
- 노동시장 퇴장형을 보면 20대 남성이 18.7%, 20대 여성은 17.8%로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취업 준비를 위해 미취업상태로 전환

□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

○ [그림 4]에서 보듯이,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40.3%, 전문관리직의 37.6%가 정규직 전환 유형에 많이 속해 있었고, 생산직(49.9%)과 농업어업직(47.8%)은 비정규직 고착 유형이 높음.

- 한편, 산업별로 보면 공공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시장 퇴장이 많음

[그림 4] 유형별 산업 및 직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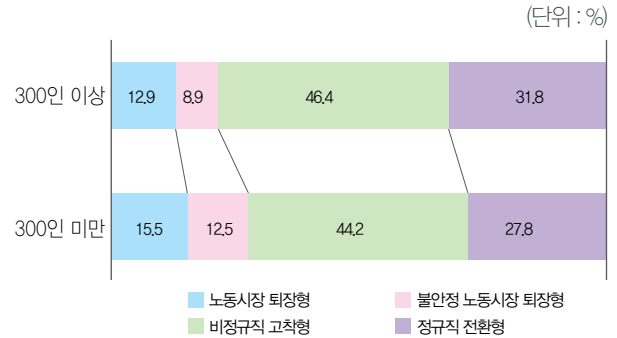


주 : 각년도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0~15차(2007년~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 대규모 사업체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에 머무는 비율이 높아

-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31.8%로 300인 미만 사업장(27.8%)보다 높음
-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악순환이 존재함

[그림 5] 유형별 사업체 규모 특징



주 : 각년도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KLIPS 10~15차(2007년~2012년 조사) 공개용 자료

4

요약 및 시사점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유형은 26.3%,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는 유형은 43.9%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
 -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분리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방향을 근로조건 향상 뿐 만 아니라 이동성의 촉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비정규직 일자리를 그만 둔 후 재취업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위해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20~30대 청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초기 노동시장 진입 상태가 향후의 일자리 질을 결정하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장 경험과 경력형성 및 개발을 통해 상향 이동의 일자리 미래 기회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